

김영광 “첫 액션 도전...코믹·액션 모두 잘하고 싶다”

‘미션 파서블’ 흥신소 사장 ‘우수한’ 역

“유쾌하고 밝은 영화라서 작품 선택”

이선빈과는 자연스러운 친남매 케미

영화 개봉날 드라마 ‘안녕? 나야!’ 첫방

“이번 작품은 제가 제대로 선보이는 첫 액션 코미디 영화죠. 액션이 잘 나와서 기쁘고 코미디 재밌게 그려져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배우 김영광이 17일 개봉하는 코믹 액션 영화 ‘미션 파서블’로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일단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된 게 고맙고 다행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미션 파서블’은 선입금 후임무 흥신소 사장 ‘우수한’과 열정 총만 비밀요원 ‘유다희’가 무기 밀매 사건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공조하다 벌어지는 아찔한 코믹 액션 영화다.

김영광은 극 중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 해내는 흥신소 사장 ‘우수한’ 역을 맡았다. 파리만 날리는 사무실, 밀린 월세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유다희가 들고 온 현금 앞에 그녀와의 공조를 약속한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영화였어요. 관객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안 해본 무술(액션)을 새롭게 배우한다는 것도 좋아서 작품을 선택했어

요.”

“코믹 요소에 열정 볼테워...애드리브 욕심”

김영광은 이번 영화로 데뷔 이후 액션에 처음 도전했다. 그는 “액션이 체질”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모델 출신인 김영광과 체형이 비슷한 대역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는 영화 속 모든 액션을 소화했다.

그는 “제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다 보니 액션 장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나올까 봐 걱정했다”며 “그래도 액션이 연습한 만큼 뿌듯하게 나와서 만족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느낌상 액션이 괜찮은 것 같다”고 웃었다.

코미디 현장에서 애드리브를 더하며 욕심을 냈다. 김영광은 “열정이 불타올랐다”며 “평소에 애드리브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많이 했다. 감독님도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재밌는지 모르니까 다 다르게 해서 좋은 걸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액션과 코믹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도 됐다. 그는 “돌

다 어려웠다”면서도 “코믹과 액션 모두 잘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액션은 제가 두 달 동안 액션 스쿨을 다니며 준비했고 잘 나올 거라는 무술감독님의 확신 덕분에 잘 따라갔어요. 코믹은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웃음을 기준으로 잡았죠. 처음엔 많이 안 터졌는데, 애드리브를 더하고 스태프들이 웃어줘서 코믹 부분도 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극 중 신분을 숨긴 엘리트 수습 요원 ‘유다희’ 역의 배우 이선빈과는 즐겁게 촬영했다. 김영광은 “이선빈씨는 정말 마음이 넓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난 배우”라고 칭찬했다.

“주변에서 친남매 케미라고 하는데, 평소 장난을 많이 치면서 케미가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액션이 많았고 의상도 불편한데 본인이 힘든 것보다는 저나 다른 배우를 먼저 생각했죠. 친구처럼 편하게 해줬고, 제가 우수환으로 알미운 연기가 잘 살아난 것도 이선빈 배우가 많이 도와준 덕분이지요.”

‘미션 파서블’의 열린 결말로 속편에 대한 궁금증도 나온다. 그는 “찍으면서 감독님과 장난처럼 속편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수환의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이야기가 속편으로 나오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누아르·정통 멜로 원해...장르 구분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김영광은 이번 영화로 친구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우수환은 어딘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매력에 있는 캐릭터예요. 김영광이라는 배우도 인간적이고 친숙한 느낌이었으면 해요. 고개만 돌리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 말이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김영광은 “더 좋은 액션도 보여드리고 싶고, 코미디 마찬가지로”라며 “장르에 구분 없이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르적으로는 누아르를 해보고 싶어요. 정통 멜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악역도 나쁘지 않죠. 더 많이 여러 장르를 하고 싶어요.”

일과 연애에 관한 물음에는 현재 일에 대한 욕심이 더 크다고 했다. “아직은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키우고 싶어요. 일에 생각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어도 그것보다는 좋은 작품, 좋은 역할을 하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파서블’ 개봉일에는 김영광 주연의 KBS 2TV 새 드라마 ‘안녕? 나야!’도 첫 방송 된다. 김영광은 극 중 철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재벌 3세 ‘한유현’ 역으로 최강희와 호흡을 맞춘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드라마”라며 “영화와 드라마가 동시에 나오게 됐다. 율해를 기본 좋게 시작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광은 앞으로도 열일 행보를 예고하며 “열영광으로 불러 달라고 너스레도 떨었다. 자신에게 붙여지는 모델 출신 배우라는 말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자신했다. 그는 “제가 모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우라는 수식어와 모델이라는 수식어,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고 미소 지었다. “작품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제 몫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쓰임새가 있는, 쓰일 만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장르와 상관없이, 장르를 뛰어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죠.”

유재석 새 예능 ‘컴백홈’...조병규 “유재석 옆에서 올인”

올 상반기 첫 방송 예정

유재석의 KBS 2TV 새 예능이 ‘컴백홈’으로 제목을 확정지었다.

함께 MC를 맡은 조병규는 “유재석 옆에서 올인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KBS 2TV 예능물 ‘컴백홈’ 측은 16일 새내기 MC 조병규의 사전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조병규는 “(기획안을) 보자마자 하고 싶었다. 고민도 없었다”며 “롤모델은 제 옆에 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그는 “재석이 형이랑 함께 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재석이 형 옆에서 잘 보필할 수 있을까? 재석이 형에게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성격상 재미있게 나가는 건 싫다. 진짜 올인할 마음으로 온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대하고 싶은 게스트로는 아이유를 꼽으며, 돌연 아이유를 향해 영상 편지까지 띄워 웃음을 더했다.

조병규는 성공한 스타가 낯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했던 첫 보금자리를 돌아보는 콘셉트에도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이 기획안 보고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처음 살았던 데가 옥탑방이다. 그래서 내 꺼야 싶었다”며 “옥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위로가 많이

됐다. 달도 잘 보였는데, 달의 정기를 받으려고 밖에 나가서 대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한편 ‘컴백홈’은 올 상반기 첫 방송될 예정이다.

‘스라소니 아카데미’ 김상중과 ‘아는척 어벤저스’ 7명 확정

다음달 방송 예정

배우 지주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소영, 변호사 김정현, 동양철학 윤태양 교수, 문학평론가 허희, 김갑수, BI 라임이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아는척어벤저스-스라소니 아카데미’에 출연한다.

‘스라소니 아카데미’ 제작진은 16일 배우 지주연, 방송인 김소영, 변호사 김정현, 동양철학 윤태양 교수, 문학평론가 허희, 문화평론가 김갑수, 책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BI 라임이 아카데미 회원으로 구성된 ‘아는척 어벤저스’ 7명과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30대가 주축인 국내 톱

클래스 인문학 명사들이 ‘스라소니 아카데미’를 결성해, 귀에 쏙박히면서도 재밌는 인문학 지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진중할 모습부터 유쾌한 매력을 오가는 김상중 원장과 ‘아는척 어벤저스’의 새로운 활약상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김상중과 첫 촬영을 마친 출연자들이 자기 캐릭터에 맞는 닉네임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과 단체 포즈가 담겼다.

서울대 출신 배우 지주연은 ‘허당 뇌섹녀’라는 닉네임을, 남편 오상진과 책방을 운영 중인 방송인 김소영은 ‘프리한 책방언니’라는 닉네임 카드를 들었다.

변호사 김정현은 ‘그림 읽어주는 변



호사’, 동양 철학 교수인 윤태양은 ‘21세기 유교보이’, 문학평론가 허희는 ‘문학계의 아이돌’이란 닉네임 카드를 공개했다. 김갑수는 ‘아! 갑스형’, 라임양은 ‘역사적인 그녀’라는 닉네임 카드를 들어보였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상중과 ‘아는척 어벤저스’ 7명은 한 곳을 응시하며 단체 포즈를 취했다.

‘스라소니 아카데미’는 3월 방송될 예정이다.

현빈♥손예진, 해외 광고 동반 출연...찐커플 꿀 케미

톱스타 커플인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해외 광고에 동반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필리핀 통신사는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출연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영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는 엔딩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광고는 현빈과 손예진이 열애를 공식 인정 후 함께한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현빈과 손예진은 광고 메이킹 인터



뷰영상에서도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 이번 영상도 무척 즐

겁게 촬영한 만큼 현장 분위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박훈정 감독 신작 ‘낙원의 밤’, 4월 넷플릭스 공개

엄태구·전여빈·차승원·이기영 등 출연

박훈정 감독의 신작 ‘낙원의 밤’이 오는 4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16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영화 ‘낙원의 밤’은 오는 4월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된다.

‘낙원의 밤’은 조직의 타깃이 된 한 남자와 삶의 끝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신세계’, ‘브이아이피’, ‘마녀’ 등에서 강렬한 이야기와 탁월한 액션의 누아르 장르를 선보여온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다. ‘밀정’, ‘안시당’ 등을 통해 독보적

매력을 보여준 배우 엄태구와 ‘죄 많은 소녀’ 등의 배우 전여빈, ‘독전’에서 잊지 못할 악역을 선보인 배우 차승원이 출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배우 이기영, 박호산 등이 합류했다.

‘낙원의 밤’은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됐다. 알베르트 바르베라 집행위원장은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나온 가장 뛰어난 게스트 영화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해외 유수 매체들도 “박훈정 감독의

피 튀기는 범죄 스릴러.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스타일 리치하고 예측불허한 범죄 드라마. 좋은 구성, 재미있는 캐릭터들, 흥미진진한 액션이 균형 있게 배워져 있다” 등 호평을 내놨다.

박훈정 감독은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 각본으로 총무로 스타 작가로 등극했고 이후 각본과 연출을 맡은 ‘신세계’로 한국형 누아르의 새로운 판도를 제시했다. 이후 ‘브이아이피’, ‘마녀’를 통해 탁월한 연출 감각을 보여주며 장르 영화의 대가로 자리 잡았다.

홍수아, 악플러 법적 대응...“고소장 준비·선처 없어”

배우 홍수아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수아의 소속사 글로빅엔터테인먼트는 16일 “특정인들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 게시와 모욕적인 비방,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인

격 모독 등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며 “이에 회사 내 자체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 홍수아의 의견을 존중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더이상 악플러들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